



'짱뽕이와 두루미' 합창단 어린이들이 23일 합창 공연을 마친 뒤, "아빠 힘내세요"라고 외치고 있다. /순천=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함께 노래해요 우리 당당한 한국인

순천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짱뽕이와 두루미'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순천시 덕월동 순천제일대학 대운동장. 다문화가정 및 한국인 가정 아이들 24명으로 구성된 '짱뽕이와 두루미 합창단(지휘 박종렬·순천시립합창단원)'은 이날 열린 '제3회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축제' 개막식에서 반주(피아노 박영주)에 맞춰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였다.

축제에 참석한 500여명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외모는 각기 다르지만, 한데 어우러져 여느 합창단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합창 공연을 선보인 '짱뽕이와 두루미 합창단'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어머니가 필리핀·중국·태국·일본·베트남 등 이주여성인 18명과 한국인 아이가 6명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절대 다수인 '짱뽕이와 두루미 합창단'은 음악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일반 가정 2세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7월 창단했다.

다문화가족 축제 개막식

24명 한마음 공연 인기

합창단의 이름은 세계적인 명소인 순천만에 살고 있는 짱뽕어와 두루미처럼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짱뽕이와 두루미'로 짓게 됐다.

예비 초등학생부터 초등 6학년 에 이르는 합창단 어린이들은 창단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되는 연습으로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즐거움에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연습에 몰두했다. 한주도 빠짐 없이 모여 연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의 사이도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 합창단원 임현정(11·초교 4년)은 "합창 연습을 하는 금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거든요"라고 말했다.

한국인 가정 어린이인 박진우(12·초교 5년)군도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사귀게 돼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라고 밝혔다.

둘도 없는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은 다문화가정 2세대뿐만이 아니었다. 다문화가정 및 일반 가정 부모 역시 자녀를 합창단에 보낸 뒤 왕래하면서 서로 다른 가정을 알고 이해하게 된 것.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결혼한 서정성(39)씨는 "11살짜리 딸이 합창단에 들어가게 된 뒤 다문화가정 행사에 자주 참여하게 돼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꾸준히 열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교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짱뽕이와 두루미 합창단'은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정기공연을 포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종렬(43) 지휘자는 "합창단 어린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눌하기도 못할 정도로 낯을 가렸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돼 기쁘다. 합창 실력만큼이나 어린이들의 관계도 발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김희기자 kimho@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자사고 내신 30% 제한 반발 학부모가 가처분 신청

법원에 모집중단 요청

광주지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신입생 지원자격을 성적 상위자 등으로 제한한 것에 반발한 한 학부모가 법원에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청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모집요강이 전국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 북구 K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의 부모가 최근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신입생 모집 출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군의 부모는 보문학숙의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전형요강 가운데 일반전형의 지원자격 부분 효력을 정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신입생 일반 전형 추첨과 합격자 발표를 해선 안 된다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석차 백분율 42.8%로 보문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목적으로 한 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며 "보문고가 일반전형에서 석차백분율 상위 30% 이내인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율고는 교육과정 자율권 등을 보장받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 조달하는 학교인 만큼 나머지는 일반고와 다를 없다"며 "이런 자율고가 성적 우수자만 선발할 수 있는 사립고로 운영된다면 평준화 정책을 흔들고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문고를 비롯한 송원고, 송덕고 등 광주지역 자율고 3곳은 모두 내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석차 백분율 상위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김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석차 백분율 42.8%로 보문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외고 지정 강행 않겠다

이주호 교과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외고 설립과 관련, "광주외고 지정 동의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

영진 의원(민주·광주 서구)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광주외고 지정의 부적절성을 집의한 결과, 이 장관이 '광주시교육청의 외교 지정 협의요청을 검토하는 데 김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외교지정 문제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영진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기습 추위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낮에도 다소 쌀쌀하겠다.

도시	구름량	최저기온	최고기온
광주	구름	15/17°C	15/17°C
목포	구름	14/16°C	14/16°C
여수	구름	16/19°C	16/19°C
완도	구름	14/18°C	14/18°C
구례	구름	13/18°C	13/18°C
해남	구름	15/18°C	15/18°C
장흥	구름	14/18°C	14/18°C
고흥	구름	15/20°C	15/20°C
순천	구름	15/18°C	15/18°C
영광	구름	14/16°C	14/16°C
진도	구름	15/17°C	15/17°C
전주	구름	13/16°C	13/16°C
남원	구름	12/17°C	12/17°C
목포	구름	14/16°C	14/16°C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보통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보통	주의	낮음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3.0~5.0m	목욕	03:01	08: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여수	15:39	20:4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여수	10:07	03:3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3.0~5.0m	여수	22:00	16:06

벌써 초겨울?

광주·전남 기온 뚝... 내일 아침 최저 2도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25일 오후부터 기온은 큰 폭으로 내려가 26일에는 초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광주·전남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가 26일 새벽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다"고 예보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20도로 예상되지만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7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전날보다 7~10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26일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양수희기자 yang@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 주최/주관 : 구례군 /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전라남도,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남부관리사무소

제34회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GURYE PIAGOL MAPLE FESTIVAL

2010. 10. 30 (토) - 31 (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피아골계곡 및 단풍공원일원

주요행사 | Main program

시간	행사명	장소
11:00~12:00	단풍제례	표고막터
12:00~14:00	단풍숲속시낭송	표고막터
14:00~17:00	단풍숲속음악회	표고막터
14:00~15:00	건강정수 실버음악회	특설무대
15:00~15:30	댄스공연	특설무대
15:30~16:30	관광객어울마당	특설무대
16:30~17:30	모듬북공연	특설무대
17:30~18:00	개막식	특설무대
18:00~20:00	피아골 축하미당(KBS-R 빛고을차차)	특설무대

둘째날 10. 31. (일)

09:00~15:30	피아골단풍길트레킹	직전마을→단풍공원→삼흥소
10:00~16:00	단풍사생대회	연곡사앞
10:00~12:00	단풍숲속음악회	표고막터
14:00~15:00	단풍숲속음악회	표고막터
14:00~14:30	락밴드 공연	특설무대
14:30~15:30	관광객어울마당	특설무대
15:30~16:30	피아골단풍길트레킹 경품추첨	특설무대
16:30~17:30	단풍콘서트(안치환)	특설무대
17:30~18:00	폐막식	특설무대

"삼홍(三紅)"과 함께하는
오색단풍 여행